

 대통령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보 도 자 료	작성과	기획총괄과
	2018년 12월 15일(토)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과 장 류득원 사무관 김도영
		연락처	02-2100-1405 02-2100-1406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확정

-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개최 -
- 3대 분야 12대 전략 104개 핵심사업 본격 추진 -

- 대통령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한완상 전 통일·교육부총리, 이하 '위원회')는 12월 1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전체회의에는 이 총리와 한완상 민간위원장을 비롯하여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8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 * 주요참석자 : 민간위원(윤경로·김정인·김호기 분과위원장 등), 정부위원(통일·법무·국방·여가부장관, 국조실장, 보훈처장 등)
- ①100주년 기념사업 종합계획(안)과 ②「쉽고 바르게 읽는 3·1독립선언서」 제작 및 활용계획(안) 등 2건을 심의하고 확정하였다.
- 위원회는 이날 확정된 「100주년 기념사업 종합계획」에서 '자랑스런 국민, 정의로운 국가, 평화로운 한반도'라는 비전 아래 3대 분야 12대 전략을 제시하였다.
 - 이를 토대로 위원회는 3·1운동의 정신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가치를 계승하기 위한 각종 기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3·1운동 정신과 임시정부의 가치】

- 1919년 당시 3·1운동은 남녀노소, 계층 구별 없이 전국적인 참여*로 전개된 비폭력 저항이자, 인간의 존엄성을 억압하는 기존 질서에 대한 평화적 항거였다.

* 당시 인구의 1/10이 넘는 200만여명 참가

- 한편, 대한민국 임시헌장*에서는 제국(帝國)에서 민국(民國)으로 전환을 선포하면서 민주공화국으로서의 정체성을 최초로 밝혔고, 현재 헌법에서도 그 법통을 계승하였다고 천명하고 있다.

*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 위원회는 이와 같은 3·1운동의 비폭력·평화정신과 임시정부의 민주적 이념을 재조명하고 발전시켜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토대를 만들기로 하였다. 특히 내년을 2045년 광복 100주년 준비의 원년으로 삼아 포용사회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종합계획 수립 경과】

- 위원회는 지난 7월 3일 공식 출범 후 부처·지자체·민간 등 다양한 기관 간 협의와 국민 아이디어 공모 등을 거쳐 100주년 기념사업을 발굴하였다.

- 20대에서 80대에 이르는 연령대와 다양한 직군, 역사적 상징 등을 바탕으로 위촉된 민간위원 67명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기념사업을 최종 확정하였다.

- 특히 전체위원의 절반이상이 여성으로 구성된 점은 지난 100년의 역사 속에서 소외되어 온 여성의 역할과 가치에 대해 성찰하고 재조명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종합계획 주요내용】

1. 독립운동의 기억·기념

- ① 내년 3·1절과 임시정부 수립기념일(4.11) 전후 온 국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한다.
 - 전국 각지에서 3·1만세운동을 재현하는 행사가 개최되며, 지자체 행사와 연계하여 '독립의 햇불'을 릴레이로 봉송한다.
 - 미국 필라델피아에서는 제1차 한인회의를 재현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중국 상하이에서 국회 주관 임시의정원 개원과 임시정부 수립을 기념하는 국제 세미나가 열릴 계획이다. 일본 도쿄에서는 2·8독립선언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준비한다.
 - 한편, 각국 재외공관에서 동포사회와 공동으로 현지 독립유공자 후손과 외국인 유공자를 초청하는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한다.
- ② 애국선열의 독립정신을 선양함으로써 역사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일제 강점기 수형기록을 전수조사하고 추가 유공자 지정을 추진한다. 특히 독립운동을 지원한 외국인의 공적을 발굴하고 그 가치를 재조명한다. 또한, 국외거주 독립유공자 후손을 국내로 초청하고, 일부를 선정하여 임시정부 루트 탐방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 유관순열사 등 묘지가 미확인된 독립유공자의 묘지확인을 위해 그 후손의 DNA 확보를 추진하며, 국외 독립유공자 유해를 국내로 봉환하는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 일반국민이 주축이 된 항일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도 해당 지역 중심으로 추진된다. 특히 학생 주도로 일제 민족차별과 식민지 교육에 항거한 광주학생독립운동과 그 전국적 확산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아카이브를 구축한다.
 - 아울러 그간 독립유공자 후손이 사회적으로 소외됨에 따라 발생한 심리적 트라우마 등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 ③ 독립운동, 독립유공자 등을 소재로 한 각종 문화콘텐츠를 제작한다. 한말 의병 활동에 관한 창극 「호남의병 혈전기」 제작과 이상화·이육사·윤동주·한용운의 삶과 문학을 재조명하는 「우국시인 현창 문학제」 등이 진행된다. 또한, 대한민국 역사 100년 동안 주요 인사를 다룬 미니 다큐도 시리즈물로 제작된다.
 - ④ 국내에서는 효창공원 독립공원화,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 안동 임청각 복원 등을 통해 역사적 의미를 담은 기억의 공간을 조성한다. 국외에서는 중국 충칭 광복군 총사령부 복원, 러시아 우수리스크 최재형 전시관 개관, 일본 2·8독립선언 기념관 개선 등을 추진한다.

2. 대한민국 100년의 발전·성찰

- ① 위원회는 10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민주공화국 100년의 역사를 성찰한다. 그리고 각종 학술포럼, 자료집 발간 등을 통해 3·1운동과 임시정부의 가치를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 위원회는 내년 3월경 한국독립운동이 동북아 평화에 미친 영향 등을 주제로 국제학술포럼을 진행하는데, 브루스 커밍스(Bruce Cumings) 등 세계 석학을 초청할 계획이다. 또한, 일반국민들이 3·1운동과 임시정부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DB화 하고 인포그래픽 자료집을 발간한다.

- 민주주의 발자취를 고취하기 위해 민주·인권·평화박람회를 개최하고, 민주주의 역사 주제관을 설치하여 임시정부 수립 이후 100년의 독립운동과 민주화의 역사를 주제별로 정리한다. 아울러, 민주화와 관련된 추모·체험·교육을 위한 민주·인권기념관 건립을 추진한다.
- ② 분단과 전쟁을 극복하고 발전한 역사를 조명하는 기념사업도 추진한다. UN군 참전의 날 행사 등을 통해 참전용사와 유가족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달한다. 산업기술 발전과 혁신을 이끈 100장면, 한국 해양 100년 테마전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100년을 돌아본다.
- ③ 그간 100년 역사 속에서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실천한 여성의 역할과 가치를 재조명한다. 판결문, 신문기사, 관보 등을 통해 여성 독립운동가를 추가 발굴하고, 기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 또한, 6~70년대 과독 간호사 등 산업화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 복원에 관한 조사연구를 진행한다. 장기적으로 지난 100년의 역사 과정에서의 여성사를 고찰하고 전시·교육공간으로 여성사박물관 건립(가칭 「대한민국 여성 100년의 집」)도 검토하고 있다.
- ④ 독립운동과 국가 발전과 함께하였으나 그간 소외되었던 재외동포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국외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국적부여와 체류제도 개선 등 재외동포의 법·제도적 권익 향상을 추진한다.
- 일제에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동자들의 거주 마을인 우토로에 기념관을 건립하여 한일 우호와 평화의 가치를 계승하는 공간을 조성한다.
- 장기적으로 차세대 재외동포들의 정체성 교육을 위한 시설과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건립을 검토 중이다.

3. 국민과 함께 만드는 미래·희망

- ① 위원회는 과거 100년의 성찰을 통해 미래 100년의 희망을 전망하기 위한 각종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국민대토론회, 정책연구, 국제학술대회 등을 통해 미래 100년의 비전을 설계한다.
 - 아울러 2019년을 원년으로 새로운 미래 100년 비전을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가칭 「미래100년 위원회」를 마련하여 지속가능하고 추진력 있는 실천구조를 검토하고 있다.
- ② 참여·공정·평화를 지향하는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주권자로서의 민주시민 의식개선, 통일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확산을 모색한다.
 - 종전과 평화, 희망을 상징하는 평화공원과 조형물 조성방안을 마련한다. 서울 용산 등 외국군대가 지속적으로 주둔한 지역에 공모, 성금모금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추진할 계획이다.
- ③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조성하기 위한 남북공동사업을 추진한다. 9월 평양공동선언문의 후속조치로 남과 북이 협의하여 3·1운동 100주년 공동기념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한반도 평화대장정 등 남북대학생 간 교류도 검토하고 있으며, 공동 학술회의 또는 전시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 아울러 내년 안중근의사 탄생 140주년(의거 110주년)을 계기로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 독립운동 행적지 순례, '동양평화론' 재조명을 하는 학술회의 등 공동사업 추진도 검토하고 있다.

- ④ 3·1운동의 비폭력·평화 가치를 세계에 전파하여 미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공감대 확산을 모색한다. 한반도국제포럼, 한일 미래관계 공동포럼, 우드로윌슨센터와의 공동 세미나 등을 통해 동북아 화해·협력을 위한 미래공동체 구상을 논의한다.

【국민참여 활성화 사업】

- 위원회는 일반국민의 상상력과 집단지성을 기념사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국민참여 사업을 실시한다. 국민이 기획·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위원회가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공식 인증하는 (가칭) 「함께 만드는 100년」을 추진한다.
- 국민참여단과 전문가 협업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100년 토론광장」, 미래 100년과 관련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국민경연 방식으로 도출하는 「코리아 챌린지」를 추진한다.
- 그 밖에 독립운동 관련 자원봉사, 100년 서포터즈, ‘이제 우리는’ 선언대회 등 다양한 국민참여 사업이 진행된다.

【추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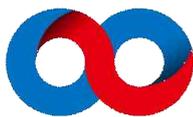
- 위원회는 100주년 기념사업이 일회성 행사가 아닌 1년 내내 국민적 관심이 지속될 수 프로그램을 구성할 계획이다.
- 위원회는 앞으로 2019년 1월까지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데 중점을 두는 한편, 100주년 기념주간(3.1~4.11)에 핵심 기념행사와 국민참여형 사업을 개최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함께 하는 축제로 승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 5월 이후에는 3·1운동 정신(비폭력·평화)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가치(민주공화제)를 지속 확산시키는데 주력하면서 대한민국 미래 100년의 비전을 수립하기 위한 학술·문화예술 행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한편, 이날 위원회는 「쉽고 바르게 읽는 3·1독립선언서」를 제작하여 적극 보급하기로 하였다. 기존의 3·1독립선언서는 국·한문 혼용으로 작성되어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반면, 이번 독립선언서는 원문의 의미를 충실히 살리면서 초등학교 수준에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서술하였다.
- 이를 위해, 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 독립선언서 원문과 기존 번역문을 참조하여 역사학자와 아동문학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9월에는 서울 시내 초등학교 교사 및 4~6학년생 200여명을 대상으로 강독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 위원회는 「쉽고 바르게 읽는 3·1독립선언서」를 전자파일, 동영상, 오디오북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하여 초·중·고 등 각급 학교와 관련 기관 등에 배포함으로써 3·1운동의 의미를 공유·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 ※ 붙임 1. 100주년 기념사업 종합계획
2. 쉽고 바르게 읽는 3·1 독립선언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종합계획

2018. 12.



**대통령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목 차

I. 왜 지금 100주년 기념사업인가?	1
II. 계획의 수립경과	3
III. 비전과 추진전략	5
IV. 기념사업 추진과제	6
1. 독립운동의 '기억·기념'	7
2. 대한민국 100년의 '발전·성찰'	14
3. 국민과 함께 만드는 '미래·희망'	18
V. 국민참여 활성화 사업	22
VI. 홍보전략	24

I. 왜 지금 100주년 기념사업인가?

- ❖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법통과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추구하는 번영의 미래 100년 준비

□ 대한민국의 법통(法統)과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재정립

- 우리헌법 전문에서 대한민국은 3·1운동과 임시정부의 법통(法統)을 승계하였음을 천명
 - ※ 임시정부는 헌법 제1조 민주공화제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 태극기와 애국가라는 국가상징을 물려줌
- 3·1운동과 임시정부에 뿌리를 두고 촛불 시민혁명으로 이어진 자랑스러운 국민주권 시대를 대한민국 역사의 주류화(主流化)로 정립
 - ※ 독립운동 → 4·19혁명 → 5·18민주화운동 → 6·10민주항쟁 → 촛불시민혁명

□ 대한민국 독립과 발전에 기여한 애국선열에 대한 기억·감사

- 독립운동을 위하여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바친 독립유공자를 발굴하고 유적지를 보존하여 그 정신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예우
-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한 참전유공자, 산업화와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고 땀 흘린 공헌자에 대한 감사
 - ※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에서, 국가에 헌신하면 “3대가 대접” 받도록 “보훈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애국의 출발점”이 되는 보훈정책 강화

□ 경제발전과 민주화의 성과에 대한 성찰적 재조명

- 1960년대 이후 지속되어 온 압축적 경제성장으로 국민소득 3만불 수준의 놀라운 경제발전을 달성했으나,
 -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과 부의 불평등 해소, 사회갈등 및 인구·자본의 수도권 집중 등 사회적 문제 발생, 해결방안 모색 필요
 - ※ 국가 행복지수 155개국 중 56위('17,UN), 사회갈등지수 3위('16, 한국경제연구원)

- **촛불시민혁명으로 표출된 민의가 모든 국민의 삶에 뿌리내리고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제도화**
- 생활현장에 국민이 직접 참여·결정하는 **‘국민중심 민주주의’ 강화**
 - ※ 민주시민교육 제도화 및 양보와 타협, 연대와 배려의 경제민주주의 정착

□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 미래 100년의 착실한 준비**

- 3·1운동 및 임정수립 100주년을 2045년 대한민국 광복 100주년 준비의 원년으로 삼아 **‘포용사회’ 기반 마련**
 - ※ 민주·인권·평화의 확고한 토대구축, 경제적·사회적·국제적 포용성·다양성 수용
- 3·1운동의 **비폭력·평화** 정신과 임시정부의 **민주공화국 이념**을 토대로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의 완성
 - ※ 「9월 평양공동선언(9.19)」의 철저한 이행 (남과 북은 ... 3·1운동 100주년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하기로 하고, 그를 위한 실무적인 방안을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적극적인 균형자적 역할을 통한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체계 기반 마련**
 - ※ 3·1운동 정신을 바탕으로 일본 등 주변국과의 진정한 화해·협력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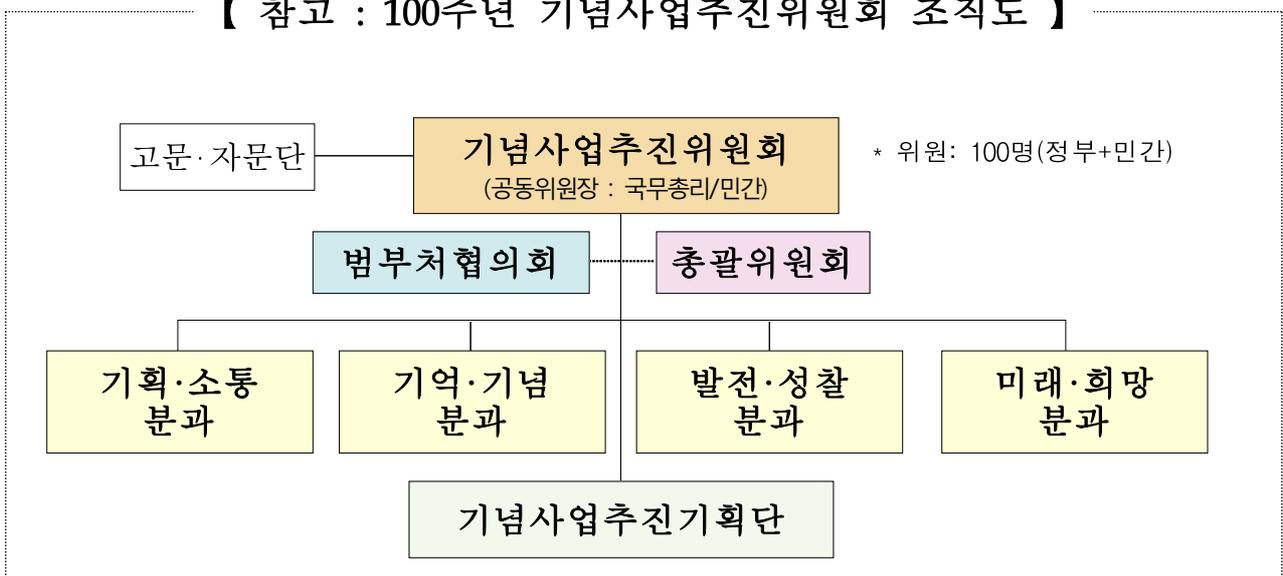
【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가치 】

- ① (민주공화) **‘제국(帝國)에서 민국(民國)의 시대’로 전환**
 - ※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헌장(제1조)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 ② (민족통합) **남녀노소·지역·계층 구별 없이 전 국민적 동참**
 - ※ 국내만세시위 1,542회, 전체인구의 1/10이 넘는 200만 명 참가
- ③ (자유평등) **인간의 존엄성을 억압하는 기존 질서에 항거**
 - ※ 임시헌장(제3조) : 남녀귀천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함
- ④ (세계 평화) **식민제국주의를 청산하고 세계평화 지향**
 - ※ 중국의 5·4운동, 간디의 비폭력·불복종 운동 등 제국주의 시대 민족운동 선도

II. 계획의 수립경과

- 기념사업추진실무준비단 구성 ('17.12월)
- 위원회 설치·운영을 위한 규정 제정 (대통령령, '18.2.6. 시행)
-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과제 발굴 (총 650건, 중앙 250·지방 400)
 - 관계부처 차관회의(2회), 관계기관 TF회의(4회), 중앙지방 협력회의(4회) 등
- 기념사업 프로그램, 슬로건 등에 대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 민간위원 위촉 및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발족 ('18.7.3, 문화역 서울284)
- 제2차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개최 ('18.9.6,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
- 4개 분과위원회 개최(소관 사업 검토) 및 사업예산 확보 ('18.12월)
- 제3차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개최 ('18.12.14,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

【 참고 :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조직도 】



【3·1운동 및 임시정부 관련 일반국민 인식 (빅데이터 분석, '18.12.3)】

① 긍정, 부정적 이미지 혼재

- (긍정) 대통령 기념사 등을 통해 평화, 발전, 노력 등을 지향가치로 인식
- (부정) 항거, 탄압, 희생 등 우리민족의 고난과 역경의 역사로 기억



② 언론 이슈 등을 통해 일부 인물·지역 등 인지

- (인물) 김구, 광복군, 독립유공자 등 역사적 인물 및 집단에 관심
- (지역) 상하이, 충칭 등 독립운동과 관련된 역사 유적지에 관심
- (시설) 독립기념관, 서대문형무소, 광복군 총사령부 등



- ☞ 단편적·제한적인 역사인식을 극복하고, 일반국민이 대한민국의 법통과 정체성을 확고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념사업 필요
- ☞ 국민이 공감하는 평화, 행복, 발전 등 지향가치를 창조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 100년 비전 설계 필요

Ⅲ. 비전과 추진전략

비 전	「대한민국 100년!」 자랑스런 국민, 정의로운 국가, 평화로운 한반도	
목 표	지난 100년의 기억, 새로운 100년의 시작	
3대 분야 12대 전략	<p>1. 독립운동의 기억·기념</p>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온 국민이 함께 하는 ‘기념행사’ 추진② 애국선열들의 ‘독립정신’ 발굴·선양③ 헌신을 기리기 위한 ‘문화 콘텐츠’ 제작④ 역사적 의미를 담은 ‘기억의 공간’ 조성 <p>2. 대한민국 100년의 발전·성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민주화와 인권의 ‘민주공화국 100년사’ 고찰② 분단·전쟁을 넘어 산업화를 일군 ‘발전사’ 조명③ 대한민국 100년과 함께한 ‘여성사 재해석’④ 재외동포 성장 지원으로 ‘K-Network’ 확대 <p>3. 국민과 함께 만드는 미래·희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행복과 번영의 ‘미래 100년 전략’ 모색② 국민참여를 통한 ‘미래 희망 심기’ 추진③ 남과 북이 함께 만드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조성④ 미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적 공감대’ 확산	
민간 주도 - 정부 지원	중앙 - 지방 - 민간 협업	국제적 연대

IV. 기념사업 추진과제

【 기념사업 주요내용 요약 】

① 핵심 사업 : 104개

○ 위원회 연계 수행 : 22 / 위원회 지원·관리* : 82 (중앙 69, 지방 13)

* 위원회와 관계부처가 공동 기획·추진, 위원회의 집행·관리 대상 사업

※ 관계기관 자체사업 :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 등에서 총 579개 사업 추진

② 사업 예산 : 655억원

○ 위원회 : 30억원 / 관계부처 : 625억원 (계속 412억, 신규 213억)

* 자치단체 추진 13개 핵심사업은 지방비 등 예산 확보 중 ('18.12월 현재)

③ 10대 역점사업

- ① 국민과 함께하는 기념행사 및 문화 콘텐츠 제작 (위원회·관계부처)
- ② 100주년 기념 평화공원 및 상징 조형물 조성 검토 (위원회)
- ③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 (건립위원회·국조실·보훈처)
- ④ 효창공원의 독립공원화 (위원회·보훈처·서울시)
- ⑤ 중국 충칭 광복군 총사령부 복원·보존 (보훈처·외교부)
- ⑥ 민주·인권·평화 박람회 개최 및 민주·인권 기념관 건립 (행안부·인권위)
- ⑦ 평화·번영을 위한 '3·1절 100주년 남북공동행사' (위원회·통일부)
- ⑧ 동양평화 기원, 남북공동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 (위원회·보훈처)
- ⑨ 평화·공영의 발전적 협력을 위한 미래 100년 전망 (위원회)
- ⑩ 국민대토론회, 참여 인증 등 국민참여 활성화 (위원회)

1. 독립운동의 기억 · 기념

① 온 국민이 함께 하는 '기념행사' 추진

- ▶ '19.3.1~4.11 기간을 국민통합 대축제 기간으로 정하여, 다 함께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 예술 행사 추진

①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 행사

- 전 국민이 참여하는 기념 문화축제 (문체부, '19.2.28. 또는 3.1.)
 - 클래식·국악 공연, 시대별 대표 K-pop 공연, 근현대사 미디어아트 및 평화의 빛 점등을 통하여 역사와 미래에 대한 공감대 형성
 - * 식전행사로 '근현대사 100년 전시 및 체험 행사' 진행
 - 한국을 빛낸 세계적 음악가가 참여하여 100주년 기념음악, 코리아 판타지, 아리랑 등을 소재로 한 음악회 및 오페라 추진
- 3·1절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 (행안부·보훈처, '19.3.1., 4.11.)
 - 국내외 독립유공자 후손 및 외교사절, 미래 주역 등이 참여하여 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억, 국민 화합의 장 마련
 - ※ 일제자료 등 사료 고증에 근거하여 지정된 임정 수립 기념일 변경(4.13.→4.11.)

- ◇ 민간단체 주관 범국민대회, 민속행사(만복울림 등) 등 대규모 국민참여 행사 개최를 통해 온국민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 마련
- ◇ 문화예술공연, 종교행사, 체육행사 등 각종 문화행사 추진 (문체부, '19년)

② 국외에서의 100주년 기념행사

- 미국에서의 3·1운동, 「제1차 한인회의」 재현 (보훈처, '19.4월)
 - 필라델피아 리틀극장(당시 회의장소)에서 결의문 낭독, 미 독립기념관 까지 행진, 평화·번영을 주제로 '한·미 친선의 밤' 문화행사 추진

- 동경 2·8독립선언 100주년 기념행사 (보훈처, '19.2.8.)
 - 2·8 독립선언의 역사적 의미 재조명을 위해 재일동포와 함께하는 기념행사 및 간담회 개최(재일본 한국YMCA)
- 상해 임시정부 및 의정원 100주년 기념행사 (정책기획위·국회 등, '19.4.11.)
 -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기념식(국회) 및 임시정부 수립과 그 발전 과정을 기념하는 세미나 개최(정책기획위)

③ 자치단체와 함께하는 3·1절 기념 행사

- 3·1독립만세운동 재현 '독립의 햇불' 전국 릴레이 (보훈처·지자체, '19.3.1.~4.10.)
 - 전국적으로 일어난 3·1독립만세운동 지역 연계 '독립의 햇불' 봉송 및 만세재현행사 등 지자체 연계·통합, 전국 100곳에서 추진
- 화성 제암·고주리 학살사건 100주년 기념사업 (화성시, '19.4월)
 - 4·15추모제, 국제심포지움, 시민과 함께하는 공공아트 프로젝트 등 제암·고주리 학살 사건 순국자 추모 시민참여형 행사 개최
- 서울 3·1운동 문화축제 (서울시, '19.2.28~3.3)
 - 미디어파사드 및 콘서트, 기념식 및 재현행사, 시민참여공연 등 실시
 - * 3·1운동 재현행사, 시민 플래시몹, 시민참여공연(합창, 풍물, 댄스팀 등) 등

④ 100주년 기념 한국문화 해외홍보

- 재외공관 개최 100주년 기념행사 및 축하리셉션 (외교부·보훈처, '19년)
 - 재외공관 주관, 재외동포사회와 공동으로 주재국 인사, 현지 독립유공자 후손 및 외국인 유공자 초청 '특별 기념행사' 개최
 - * 문화행사 및 학술회의 개최, 독립운동 및 임정수립 기념 자료집 발간
- 사진전, 음악회, 문화공연, 미디어아트, 영화제, 국내방송 프로그램 연계 행사 등 특별 문화행사* 추진 (문체부, '19년)
 - * 문화원별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과 관련된 스토리텔링 요소를 적극 활용

② 애국선열들의 '독립정신' 발굴·선양

- ▶ 독립운동사에 대한 기록과 보존, 독립유공자의 삶을 재조명하여 국민적 역사의식을 제고하고 자긍심 고취

① 국내·외 독립유공자 발굴 및 선양 (보훈처, '19년~)

- 일제시대 수형기록 전수조사('18년)* 및 추가 유공자 지정 추진
 - * 1,621개 시(군), 읍, 면 방문 조사, 독립운동 관련자 4,400여명 발굴
- 한국 독립운동을 지원한 외국인 공적 발굴 및 가치 재조명
 - 미·일·중 등 외국 독립유공자 선양 학술회의 개최, 자료집 발간
 - * '18.11월 현재 외국인 독립유공자 총70명
- 헌신에 대한 감사와 보답, 유공자 후손들의 자부심 고양을 위해 국외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추진 (3회, 각 40~100명)
 - 프랑스 등 해외 독립운동 후손의 임정루트 탐방 등 검토 (위원회·보훈처 등)
 - ※ 국내 3·1운동 및 임정 서포터즈 참여, 방송사 연계 프로그램 마련
 - 독립유공자 및 후손을 선정하여 크루즈체험단 운영 (해수부, '19.4월~)
 - ※ 국가보훈처 추천 20여명 대상으로 동북아(항일유적지 등) 크루즈항로 운항

② 독립유공자 포상범위와 심사기준 등 합리적 개선 (보훈처, '19년)

-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였으나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한 독립유공자 추가 발굴을 위해 포상 기준 합리적 재설정*
 - * 최소 수형 및 옥고 기준(3월) 폐지, 실형여부가 아닌 활동내용을 판단기준에 추가
- 그간 소외된 여성(포상자의 2%), 의병(참여자의 0.8%), 학생 등 추가 발굴
 - 공적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서훈되어온 여성, 의병, 학생 독립운동가 및 유공자에 대한 공적 재심사

③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 (보훈처, '19년~)

- 유관순열사 등 독립유공자 후손의 DNA 확보로 묘지 확인 사업 추진
※ 독립유공자 총14,879명('18.3월) 중 묘소 미확인 유공자는 7,322명
- 국외 안장된 독립유공자 유해*를 국내 봉환하여 국립묘지 안장, 국내봉환이 곤란한 묘역은 관리실태 조사(매년) 및 훼손묘소 단장 지원
* 중국·미국·러시아 등 국외 안장된 유공자 유해 : 총158기
- 소외된 독립유공자 후손의 심리적 치유 및 사회적 예우

◇ '국가유공자 명패달기 사업'(보훈처, '19년~) :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구현하기 위한 범국가적 명패달기 추진
- 독립유공자 '19.4월까지 총7,650명(유공자 35, 유족 7,615) 추진, 그 외 국가유공자는 '21년까지 추진(574천명)

④ 여성·학생 등 일반국민이 중심이 된 항일 독립운동 재조명

- 여성 등이 중심이 되어 일제의 경제침탈에 대항한 국채보상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아카이브 건립 (대구시, ~'21년)
- 학생 주도로 일제의 민족차별 및 식민지 교육에 항거한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념사업 실시 (교육부·보훈처·광주시, ~'19년)
* 학생독립운동 및 전국적 확산 관련 자료조사, 아카이브 구축, 교육자료 개발 등

⑤ 3·1운동과 임시정부의 정신을 선양하는 특별기획전

- 임시정부 활동 기록물, 조선총독부의 법·제도 및 판결문 등 유물 전시회 3·1운동 관련 특이 기록물 발굴 및 기획화보집 편찬 (행안부, '19.상반기)
- 독립운동을 되새기는 항일 독립운동 문화재 전시회 (문화재청, ~'19.4월)

⑥ 100주년 기념주화·우표 발행 (기재부·과기부, '19년)

- '국내 최초 100주년 국경일'의 상징성 등 고려, 기념은화 등 발행 (총 3차례)
-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우표 발행 (2회)

③ 헌신을 기리기 위한 '문화 콘텐츠' 제작

- ▶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민족 대표민요, 독립유공자 및 주요 역사적 사건 등을 소재로 한 콘텐츠 제작으로 관심과 공감 유도

① 독립유공자 등을 소재로 한 공연 및 문학

- 독립운동의 정신적 근간이 된 **한말 의병 활동**을 주요 소재로 그린 대형 창극 '**호남의병 혈전기(血戰記)**' 제작 (전남도, ~'19년)
- 일제 식민지 치하 **저항시인 4인**(이상화, 이육사, 윤동주, 한용운)의 삶과 문학을 재조명하는 '**우국시인 현창 문학제**' 개최 (대구시, '19년)
※ 식민지 경험국 저항문학 국제세미나 개최, 전국 저항시 낭송대회 개최 등

② 100주년 기념 특별 영화 및 영상 콘텐츠 제작

-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레지스탕스 영화제** 개최 및 독립운동가 **스토리 영상**(나의 독립 영웅) 100편 제작* (문체부, '19년~)
* 3~5분 내외 스토리영상 방송사(KBS)와 공동 제작·연중 방송
- 대한민국 역사 100년 간 기억할만한 인물을 다루는 **미니다큐*** 제작
* "1919~2019, 백년의 이름을 기억한다", 3~5분 내외로 제작

③ 특집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방통위, ~'19.11월)

- 독립운동가의 항일투쟁 등을 배경으로 **방송3사**(KBS·MBC·SBS)의 **100주년 특집프로그램** 제작

- ▶ **KBS** : 다큐, 대형쇼, 예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3·1절 당일 **종일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100주년 기념 특별 프로젝트 추진
- ▶ **MBC** :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의 활약상을 다룬 드라마 '**이몽**' 제작
- ▶ **SBS** : 국내외 유명 뮤지션 등이 함께하는 특별 콘서트, 아트 & 뮤직 페스티벌, 시민대행진 행사 등 특집 생방송 추진

○ EBS, 아리랑TV, KBS월드 등 특집 프로그램 제작·방영

- ▶ EBS : 독립운동사 다큐멘터리(다큐프라임 '역사의 빛 청년', 8부작) 제작
- ▶ 아리랑TV : 독립운동가 발굴 및 재조명 프로그램(2편) 제작
- ▶ KBS월드 라디오 : 독립운동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2편* 제작
* '길을 잇다, 정신을 잇다', '길 위에 세운 나라, 대한민국 임시정부' 등

④ 민족 대표민요 '아리랑'을 소재로 한 문화 스토리텔링

- '아리랑'을 소재로 노래·춤·다큐영상 등이 어우러진 **융복합 공연 개최** (문체부, '19.4월) *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일(4.11.) KBS 생방송
- 삶의 터전을 잃은 우리 민족의 고난과 희망을 노래한 아리랑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다큐멘터리*** 제작 (정선군, ~'19.3월)
* TV방영 3부작(중앙아시아 및 유럽, 아메리카, 일본), 북한아리랑 현지촬영 등 검토

4 **역사적 의미를 담은 '기억의 공간' 조성**

- ▶ 독립운동 관련 기록·시설물의 발굴·보존 및 기념공간 조성 등을 통해 애국선열의 자주독립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 발전

① 효창공원의 독립공원화 (위원회 · 보훈처 · 서울시, '19년~)

- 백범 김구 등 독립운동사의 중요인물*들이 모여진 효창공원의 상징성을 고려, 애국선열의 열이 숨 쉬는 역사적 성지로 격상
* ①백범김구, ②3의사(윤봉길·이봉창·백정기), ③임정요인(이동녕·차리석·조성환) ④안중근(가묘) 등
- 효창공원을 추모공간과 함께 역사·문화·교육·휴식 공간이 어우러진 **복합 역사공원**으로 개선

②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 (건립위원회 · 국조실 · 보훈처, ~'21년)

- 임시정부가 갖는 민족사, 세계사적 의의를 부각하고, 애국선열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는 미래세대의 **체험과 교육 공간**으로 조성

- 자료수집·전시·교육 기능을 포괄한 기념관* 건립, 인근 서대문형무소·경교장·탑골공원 등과 연계하여 역사교육 활용

* (장소) 구. 서대문구의회, (기간)'17.10월~'21.8월, (연면적) 8,774㎡

③ 국내 독립운동 사적지 발굴·복원

- 독립유공자 이상룡 선생의 생가이자 독립운동의 산실인 안동 임청각을 일제의 훼손 이전으로 원형 복원 (문화재청·경북도, '19년~)

- 적극적 항일 독립운동을 펼친 의열단의 유적지를 발굴·재해석한 밀양 의열기념공원* 조성 (밀양시, '19년~'21년)

* 항일역사 기억공간 및 체험장 조성, 윤세주열사 생가지 복원, 의열탑 건립 등

- 3·1운동 당시 독립선언문을 제작·배포한 지리적 중심이었던 안국역을 교육·체험을 위한 독립운동 테마역사* 조성 (서울시, '19.2월)

* 독립운동 인물 소개, 벽면 및 스크린도어 활용 3·1운동 재현, 전시공간 등

④ 해외 독립운동 유적지 정비

-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항일 군사작전을 담당했던 충칭 광복군 총사령부*를 원(原) 부지에 복원·보존 (보훈처·외교부, '19.4월)

* 임시정부는 국내진공작전 등을 위해 중국 충칭에 광복군 창설(1940.9.17.)

- 임시정부 초대 재무장관인 최재형 선생을 기리기 위한 '우수 리스크 최재형 전시관' 개관* (보훈처, '19년)

* 연해주 등 러시아지역 거주 고려인동포 및 그 후손을 전시관 개관식에 초청

- 일본 2·8 독립선언 기념관 자료실 노후 전시물 교체 등 전시 시설 종합적 개선 (보훈처, '19년~)

* 충칭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 전시시설 개선은 '18년 완료 (충청시)

2. 대한민국 100년의 발전 · 성찰

① 민주화와 인권의 '민주공화국 100년사' 고찰

- ▶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의 가치와 정신을 계승하고 자유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민주공화국 지난 100년의 발자취 조명

①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가치 재해석

- 100주년 국제학술포럼 (위원회, '19.3월)
 - 3·1운동과 임정의 현대적 가치와 의미 재정립, 한국독립운동이 동북아 평화에 미친 영향에 대한 국제학술토론 개최
- 3·1운동 자료 DB 구축 및 자료집 편찬 (교육부, '19년)
 - 학술자료 종합 DB화, 지역별 통계 등 인포그래픽 자료집 발간

- ◇ 「쉽고 바르게 읽는 독립선언서」 제작, 학생·외국인 등 국내외 배포(위원회)
 - * 대한독립선언서, 2·8독립선언서, 3·1독립선언서, 대한독립여자선언서, 조선혁명선언 등

② 자유와 인권의 민주주의 발자취 고찰

- 민주·인권·평화박람회 개최 (행안부, '19년)
 - 민주주의 역사 주제관을 설치·운영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이후 100년의 독립·민주주의 운동의 역사 주제별 정리
 -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인권의 관점에서 중요사건을 발굴 및 현대적 의미에서 재해석 및 의미부여*
 - * 지역 순회 인권 전시회, 100년 인권역사관 운영, 대한민국 인권사 발간(인권위, '19년~)
- 촛불시민혁명 아카이빙 및 자료집 제작·배포 (행안부, ~'20년)
 - 촛불집회 관련 사료 수집, 시스템 구축, 비폭력·민주주의 정신 공유

- ◇ 추모·체험·교육 공간 조성을 위한 민주·인권기념관 건립 (행안부, ~'22년)
 - 남영동 대공분실 건립, 일본·미국·독일인 등 민주화운동 지원 외국인 유공자 공적 발굴 전시회 개최 등 추진

② 분단과 전쟁을 넘어 산업화를 일군 '발전사' 조명

- ▶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분단과 전쟁을 극복,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온 자랑스런 대한민국 역사 재조명

① 전쟁과 피난 등 국난극복의 민족사 기억

- 피란시절의 역경과 추억을 공유하는 '피란수도 부산夜行' (부산시, '19.6월)
 - 근현대역사문화시설 야간개방, 피란역사 스토리체험, 그림 속 피란시설 감상, 피란시절 음식·장터체험 등 '8夜 테마' 조성
- 참전용사에 대한 추모와 감사 (보훈처, '19년)
 - UN군 참전의 날 행사 등에 참전용사 및 유가족 100여명을 초청하여 UN군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 전달
- DMZ 內 6·25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추진 (국방부, '19년)
 - * 대한민국임시정부 '한인비행학교' 기념 조형물 건립 및 다큐 제작

② 역경을 딛고 성장한 번영의 역사 기념

- 기술한국 도전 100년, 산업기술 100장면 선정 (산업부, ~'19년)
 -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끈 산업기술 발전과 혁신 장면을 발굴·전파, 한국형 4차 산업혁명 모델 발굴을 위한 방향 제시
 - * 산업기술 성과 100장면을 선정하여 영상제작 및 도서 발간 추진
- 100주년 기념 해양 및 항만 역사 특별전시·행사 (해수부, '19년)
 - 역사 속 해양 100년(6월), 항일운동과 등대(8~9월) 등 테마전시 개최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 개편 추진 (문체부, '19년~)
 - 발전사관 및 국가주의적 편향성을 극복, 민주주의와 인권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반영하여 국내·외 다양한 계층이 공감하도록 개선

③ 대한민국 100년과 함께 해온 '여성사' 재해석

- ▶ 100년의 고난과 생존, 산업화와 민주화의 역사 속에서 인권·민주의 가치를 실천한 여성의 역할과 가치를 성찰·재조명

① 미진한 여성독립운동가 추가 발굴·기념

- 국내외 여성 독립운동가 발굴·선양 (보훈처, ~'20년)
 - 판결문·신문기사·관보 등 기록물 재해석을 통해 여성독립운동가 발굴
- 여성독립운동 기념·홍보 (여가부, '19년)
 - 여성 독립운동가를 주제로 특별전시 및 공연 등 기념행사 개최
 - * 여성독립운동사 조명 특별기획전, 여고생 참여 3·1운동 재현, 공모전 등

②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억과 지원 (여가부, '19년~)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8.14.) 행사 개최
 - 추모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역행사 및 국외행사와 연계 홍보
-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기획전시 개최 및 'e-역사관' 운영
 - 국제사회와 차세대에 역사를 알리는 기획전시 및 콘텐츠 보급
 - * 일본군 위안부 관련 사료·작품 기획전시, e-역사관 한·중·일·영 4개 언어 운영
-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 차원 연구·조사·홍보 체계화
 - 사료 집적·공유,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 등 학술연구토대 구축

③ 산업화 과정에서의 여성의 역할 복원 (여가부, '19년~)

- '60~'70년대 파독 간호사 등에 대한 대우 모색 등 세미나 개최, 노동* 및 민주화 역사의 여성사 조사·연구·교육
 - * 일제 치하 강제노동, 1970년대 청계천 피복 및 구로공단, 방직노동 등

◇ 여성사박물관(가칭, '대한민국 여성 100년의 집') 건립 검토 : 독립과 전쟁,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의 여성사 고찰, 전시·교육공간 구축

④ 재외동포 성장 지원으로 'K-Network' 확대

- ▶ 항일 독립운동과 국가 발전의 민족사를 함께하였으나, 그간 소외되었던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으로 모국과의 유대감 강화

①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건립 검토 (외교부)

- 모국 내 차세대 동포들의 정체성 교육을 위한 시설과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문화센터 건립 필요
- 재외동포 역사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역사유물 전시관' 등 구축

② 우토로 평화기념관 건립 (외교부, ~'21년)

- 한·일 우호와 평화의 가치를 계승하기 위해, 일제에 강제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들의 거주마을인 우토로에 평화기념관 건립
- 우토로 마을 내에 역사 보전, 한·일 미래세대에 대한 평화가치 교육시설, 전시시설 등 마련

③ 국외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부여 및 체류 제도 개선 (법무부, ~'19년)

-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삶을 위로하고 미래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국외 독립유공자 후손에 국적 부여 추진
 - *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58명 국적부여 추진
- 재외동포의 법·제도적 권익 향상 및 국내 출입국 편의 제고를 위해, 체류자격 확대, 영주요건 완화 등 체류지원

④ 해외 이민역사의 출발지 재조명 (인천시, ~'19년)

- 멕시코, 쿠바 등 해외 이주 한인의 역사를 발굴·조명하기 위한 특별전, 이민·독립운동 관련 자료수집 및 이민 기념마당 조성
 - * 이주 한인 독립운동 관련자료 전시('해외 한인독립운동 특별전'), 디아스포라 영화제 등

3. 국민과 함께 만드는 미래 · 희망

① 행복과 번영의 '미래 100년 전략' 모색

- ▶ 국민적 참여와 다양한 형태의 전문가 토론 등을 통해 정의 · 평화 · 행복 등 대한민국 미래 100년의 비전 및 방향 제시

① 평화 · 공영의 발전적 협력을 위한 미래 100년 전망 (위원회, '19.11월)

- 3·1운동 및 임정 수립 100주년을 미래 100년 준비의 원년으로 삼아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방향 모색
- i)향후 100년 전망 정책연구 추진('18.11월), ii)미래전망 국제 학술대회('19.11월), iii)연구기관 협업으로 미래비전 설계('19.12월)

② 미래 100년의 새로운 경제 · 산업 전략 수립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산업·사회* 변화 전망과 지능화 산업 혁신, 사회정책 개선 등 추진전략 모색 (4차위·과기부, '19년 상반기)

* 기술(Data·Network·AI), 산업(의료·제조·금융·도시 등), 사회(일자리·교육·안전망 등)

- 농생명 산업의 가치와 비전 확산을 위한 농식품 과학기술 및 생명산업 전시 및 학술행사 등 추진 (농식품부, '19.10월~)

* 농림축산식품 R&D 주요성과 전시·체험, 과학기술 대상 시상식 등

③ 미래 100년 비전의 장기 실천구조(가칭, '미래100년위') 마련 (위원회, ~'20.6.)

- 2019년을 원년으로 새로운 미래 100년의 비전을 국민과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지속가능하고 추진력 있는 기반 구축
-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성과를 토대로 시민참여와 민주주의의 심화를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공론의 장으로서의 역할 수행

② 국민참여를 통한 '미래 희망 심기' 추진

▶ 국민참여를 바탕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민주주의식 제고, 평화와 희망의 미래 100년을 열기 위한 국민 결집 모색

① 참여·공정·평화를 지향하는 민주시민 육성 (관계부처, 계속)

- 초·중·고 학생 등 미래세대를 위한 민주시민교육 강화 (교육부)
 - * 교과·창의적 체험활동, 콘텐츠 개발·보급,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등
- 진정한 주권자로서의 민주시민 의식개선을 위한 교육 (행안부)
 - *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구축, 참여발표대회, 시민교육 전문가 양성 등
- 통일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평화통일 교육 (통일부)
 - * 2030세대 소통형 교육, 학교통일교육 등 평화·통일의식 함양

② 종전·평화·희망을 상징하는 평화공원 및 조형물 조성 검토 (위원회 '19년~)

- 외국군대에 의한 전쟁의 아픔이 있는 지역*에 역사유적과 자연을 살리는 공원 조성, 예술적으로 희망미래를 상징하는 조형물 건립
 - * 용산: 고려시기부터 현재까지 몽고군·청군·러시아군·일본군 등 많은 외국군대 주둔
- 국민공모, 성금모금 등 국민적 참여와 공감대를 통한 추진
 - * 핀란드 '오디(Oodi) 도서관 : 핀란드 독립 100년(2017)을 기념하여 1억유로 (1,280억원)의 국비 투입, 문화·평등·개방을 상징하는 도서관 건립('16~'18)

③ 국민과 함께하는 '희망의 나무심기' 추진 (산림청, '19년)

- 평화와 번영의 미래 100년을 기원하기 위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희망의 나무심기' 국민운동 및 홍보 캠페인 전개
 - * 아름다운 우리 꽃·나무 전시회, 우리 산림의 과거와 미래100년 사진전 등

◇ 3·1운동 유네스코 등재 추진 (보훈처·문화재청, '19년~'21년)

- 세계기록유산 등재로 독립운동사와 비폭력·평화 정신을 세계 전파

③ 남과 북이 함께 만드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조성

- ▶ 남북 관계의 대전환기를 맞이하여, 학술·역사·문화·체육 등 교류협력 활성화로 남북관계의 획기적 발전과 평화 분위기 조성

① 평화·번영을 위한 '3·1절 100주년 남북공동행사' (위원회·통일부, '19.3.1.)

- 상징성이 있는 장소*를 선정하고, 남북공동선언문 채택, 음악회·축하 공연 등 다채로운 구성으로 **평화와 화합을 기념하는 행사**로 추진

* 한반도 평화의 의미를 반영, 남북공동 행사를 위한 장소 협의·선정

② 미래세대(남북 대학생), 「한반도 평화대장정」 추진 (통일부, '19년~)

- 3·1운동 100주년을 계기로 남북한 젊은 세대 간 교류기회를 제공하여 미래 세대의 **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

- 3·1운동 관련 남·북한 주요 역사유적지*를 대학생 상호 방문

* (남한) 제암리 학살(경기 화성), 아우내 장터(충남 천안) 등, (북한) 사촌 장터(평남 강서), 광산 학살사건(평북 정주) 등

③ 남북 공동 학술회의·특별전시회 (통일부, '19.3월~)

- 한반도 각 지역과 해외에서의 일제강점기 범민족적 항일운동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 및 동북아 평화를 위한 현대적 의미 분석

- 남·북 역사학자 교류를 통한 학술회의를 서울·평양 동시 개최

- 3·1운동에 대한 남북 및 해외의 주요 사료(사진, 그림, 글, 관련 사료)에 대한 남북 공동 특별전시회 개최

◇ 동양평화 기원,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 추진 (위원회·보훈처, '19년~)

- 남북공동으로 인정하고 존경하는 안중근의사 탄생(1879) 140주년(의거 110주년) 계기로 순국과 헌신의 참 뜻을 기리는 사업 추진

- GPR(지면투과레이더) 조사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유해 발굴, 안의사 독립운동 행적지 순례 및 학술회의 등 개최

4 미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적 공감대' 확산

- ▶ 비폭력·평화·인권 등 3·1운동의 지향점을 세계에 전파,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인권 확대와 세계평화 구축에 기여

① 세계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 모색

- 한반도의 안정과 통일의 필요성·당위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한반도국제포럼 개최** (통일부, 계속)
 - * 국내행사(年 1회) 및 해외 현지행사(年 4~5회)로 나누어서 개최
- **미래공영의 발전적 협력을 모색하는 국제포럼**
 - 한·일 양국의 미래협력 가치관 공유 및 구체적 방안 모색을 위한 **미래관계 관련 공동 포럼 개최** (위원회·보훈처·정책기획위)
 - 민족자결주의를 주창했던 **우드로윌슨센터**(워싱턴DC)와 평화를 주제로 한 **공동세미나 개최** (위원회·정책기획위)

② 동북아 화해·협력을 위한 새로운 미래공동체 구상 (교육부, '19년)

- 한중일의 정치·경제·사회 등 미래공동체 구상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안중근 '동양평화론' 내용 및 의의 재조명**
 - * 국내·외 전문가 기획연구 및 한중일 관련 전문가의 국제학술회의 개최 등

③ 유라시아 희망열차 시범 운행 (통일부·국토부, '19년~)

- 한반도 신경제지도 및 6자 철도공동체 구상의 일환으로 경의선 등을 경유하는 **중국·러시아·유럽 등 희망열차 시험운행 추진**
 - * 주요도시를 경유하는 종단철도 시범운행, 문화행사(음악회, 전시회 등) 실시

④ 한중 우호 카라반을 통한 소통·교류 확대 (외교부, '19년)

- 국민참여 대표단(100명)이 중국내 임정소재지(총11개)를 순회방문과 함께 **역사문화콘서트, 대학생 역사대화 등 추진**

V. 국민참여 활성화 사업

- ▶ 일반국민의 상상력과 집단지성을 100주년 기념사업에 적극 반영
- ▶ 국민대토론회, 국민 참여사업 공식 인증 등

1 핵심사업

① 함께 만드는 100년(가칭) : 기념사업 인증 운영

- 국민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100주년 관련 사업을 위원회 차원에서 공식 사업으로 인증, 국민 주도형 기념사업 확산·장려

【 일반국민 인증 혜택 】

- ▶ 기념사업 추진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차원에서 인증사업에 대해 자유롭게 100주년 상징물(엠블렘, 주제어) 사용
- ▶ 인증서 교부, 기념사업 백서에 수록, 우수사업 시상 등 인센티브 부여

② 2019 국민 대토론회 개최

- 100년 토론광장
 - 국민참여단과 전문가 협업을 통해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국민의견 수렴 및 권역별 토론광장 개최
 - * 3·1운동 및 임시정부 정신의 현대적 가치 발굴 및 실천방안 모색
- 코리아 챌린지(Korea Challenge)
 - 국민참여형 경연대회 형식으로, 미래 100년 설계 및 한국사회 업그레이드를 위한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도출
 - 전문가 심사위원단과 국민판정단 운영을 통하여 국민 아이디어 평가 및 시상 추진

② 연계사업

① 독립운동 관련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 지원 (위원회·행안부)

- 홈페이지 및 자원봉사포털('1365포털' 등)에 연계하여 지역별로 특성화된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

※ (예시) 독립운동가 후손 주거 개선, 애국지사 묘역 현화·보수 등

② '기업 사회공헌활동과 100주년 사업' 연계 강화·유도 (위원회)

- 10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사회적 책임성(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구현할 수 있도록 자발적 참여기회 제공

③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등 참여지원 (위원회·행안부·지자체)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가능토록 '공익사업 예시*'에 반영, 100주년 사업 발굴 및 확산에 민간단체의 창의성과 전문성 활용

* 국경일 의미 알리기, 나라사랑 활동 등

④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교육기반 활성화 (위원회·교육부)

- 교육주간 계기 수업 진행 권고(교육부), 우리역사 바로알기 대회 (국사편찬위원회) 추진

⑤ 「100년 서포터즈」(가칭) 운영 (위원회)

- 자율적 미션 기획·추진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사후 관리 지속
- 온·오프라인 활동으로 3·1운동 및 임시정부의 정신과 가치 공유·전파

⑥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100주년 기념사업

- 전국 226개 시·군·구 주민이 미래를 전망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태도를 선언하는 '이제 우리는' 선언대회 개최 (지역 시민단체)

* (명칭) 3·1운동 100주년 기념 '○○(지역명), 이제 우리는 선언대회'

- 지역 및 마을 단위의 소규모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과 연계하여 독립운동가 마을조성 지원 (위원회·행안부·지자체)

VI. 홍보전략

□ 홍보 컨셉 및 목표

▶ 박제화된 일방적 홍보방식 탈피, 즐겁고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있는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축제' 컨셉

- 단순 기념사업이 아닌 「대한민국 100년」이라는 세기적 사업으로 국민적 인식 변화 유도
- 전 국민적인 붐업을 통해 자발적 참여(무관심→참여)로 행동 전환
 - ※ 핵심 가치 : ① '민국'의 출발점, 비폭력·평등·인권 등 세계사적 보편 가치, ②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완성한 국민의 자긍심 ③ 공정·정의, 평화·번영의 새로운 대한민국

□ 추진 전략

- ▶ 주요 계기행사를 고려한 시기별 전략 마련, 지속적 관심과 참여 유도
- ▶ 홍보타켓을 세분화하고 그룹별 맞춤형 콘텐츠 및 매체 전략 수립
- ▶ 정부, 지자체, 유관단체를 연계한 통합홍보 추진

① (시기별 전략) 단계적인 붐업, 국민 참여, 가치 확산 추진

시 기	목 표	주요 전략
'18.12~'19.2월	붐업기 (인지와 공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통 인프라 구축 및 호기심을 자극하는 스토리 개발 ▶ 엠블럼·슬로건 등 상징물 집중홍보 통한 인지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식슬로건(국민이 지킨 역사 국민이 이끌 나라)과 더불어 「평화, 100년, 함께」 등 핵심 키워드를 활용한 움직이는 슬로건 병행 ▶ 역사적 자료를 쉽고 흥미롭게 재정리하여 공유
'19.2~4월	집중 홍보기 (경험과 교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통·홍보 점점 극대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급력 높은 매체 활용, 전국민 참여형 축제 개최 ▶ 현장 중심 홍보와 순환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프라인 메가이벤트와 프로모션 통한 참여 극대화
'19.5~12월	가치 확산기 (아젠다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속행사에 대한 홍보 및 참여를 통해 가치 확산 ▶ 미래 비전 수립 과정에 국민참여 활성화

② (대상별 전략) 그룹별 맞춤형 홍보 콘텐츠 및 매체 계획 수립

구 분	콘텐츠 전략	매체 전략
【 20 - 40 세대 】 ▶ 정부 정책지지, 여론 확산력 높음 * 이해도는 낮으나 참여 욕구 강함 ▶ 역사 매니아(일부 계층)	▶ 감동+지식+재미를 결합한 콘텐츠 ▶ 자발적 콘텐츠 생산 유도	▶ 온라인, SNS ▶ 1인 방송 미디어 * 서포터즈로 참여 ▶ 온오프라인 이벤트
【 미래 + 부모 세대 】 ▶ 교육체험 활동 참여 활발 ▶ 동영상 콘텐츠 주 소비층 * '50+ 세대' 모바일SNS 이용 증가	▶ 방송, 인터넷, SNS 등 전방위 홍보 필요 ▶ 체험형 콘텐츠를 통한 참여 유도	▶ 방송, 온라인, SNS * 특히 동영상 중심 ▶ 일상 접점 홍보 ▶ 체험형 콘텐츠
【 재외 국민 】 ▶ 역사적 자긍심 공유 ▶ 국내 콘텐츠 소비 활발	▶ 온라인 콘텐츠 * 자긍심·소속감 유발	

□ 홍보 추진체계 구축

○ 홍보협의회 구성·운영 등 범정부적 협업체계 구축

- 100주년 위원회, 행안·문체부, 방통위, 보훈처 등 협력·분담 강화

100주년 위원회	문체부	보훈처/방통위	기타 부처
▶ 계획 수립 ▶ 콘텐츠 제작·보급 ▶ 점검관리	▶ 대변인협의회 운영 ▶ 부처간 협력홍보 ▶ 정책 홍보 관리	▶ (보훈처) 관련 단체 홍보 ▶ (방통위) 방송 기획 협조	▶ 개별사업 홍보 ▶ 자체 홍보물 제작

○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홍보 인프라 통합 활용 추진

- 각 기관의 홍보매체를 공동으로 이용하여 홍보효과 극대화

※ 정부 및 공공기관 홍보 매체 : 총 613종(영상물 492, 간행물 121)

- 문체부 대변인협의회, 온라인대변인협의회를 통한 소통 강화

○ 종합홍보로드맵 작성 및 관계부처 홍보 TF를 통해 홍보상황 점검 등 체계적·지속적 홍보 관리 추진





‘쉽고 바르게 읽는 3.1독립선언서’를 펴내며

1919년 3월 1일, 전국의 7개 도시에서 만세시위가 있었습니다.
독립을 염원하며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3·1독립선언서가 낭독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라는 첫 문장을 듣는 순간,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한국인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해준
3·1독립선언서는 최남선이 썼습니다.

원고를 쓰고 이를 검토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완성된 3·1독립선언서
에는 33명의 종교 지도자들이 서명했습니다. 천도교 지도자 15명, 기독교
지도자 16명, 불교 지도자 2명이 독립의 의지를 담아 도장을 찍었습니다.
3·1독립선언서는 1919년 2월 27일에 인쇄되어 2월 28일에 전국에 배포
되었습니다. 3월 1일, 첫날 7개 도시에서 열린 만세시위에서 3.1독립선언서
가 낭독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3·1독립선언서는 인쇄 기계가 있는 학교나 교회에서 수백 매,
수천 매씩 찍어 냈고 전국 곳곳에서 매일같이 열리는 만세시위 현장에서
읽혔습니다.

만세시위 현장에서 직접 낭독한다는 마음으로 3·1독립선언서를 한번
읽어 보세요.



쉽고 빠르게 읽는 3·1독립선언서

우리는 오늘 조선¹⁾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²⁾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우리의 이 선언은 5천년 동안 이어 온 우리 역사의 힘으로 하는 것이며, 2천만 민중의 정성을 모은 것이다.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기 위한 것이며, 인류가 양심에 따라 만들어가는 세계 변화의 큰 흐름에 발맞추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시대의 흐름이며, 전 인류가 함께 살아갈 정당한 권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 독립을 가로막지 못한다.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와 강권주의에 희생되어, 우리 민족이 수 천 년 역사상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억눌리는 고통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 스스로 살아갈 권리를 빼앗긴 고통은 헤아릴 수 없으며, 정신을 발달시킬 기회가 가로막힌 아픔이 얼마인가. 민족의 존엄함에 상처 입은 아픔 또한 얼마이며, 새로운 기술과 독창성으로 세계 문화에 기여할 기회를 잃은 것이 얼마인가.

아, 그동안 쌓인 억울함을 떨쳐 내려면, 지금의 고통을 벗어던지려면, 앞으로 닥쳐올 위협을 없애 버리려면, 억눌린 민족의 양심과 사라진 국가 정의를 다시 일으키려면, 사람들이 저마다 인격을 발달시키려면, 우리 가여운 자녀에게 고통스러운 유산 대신 완전한 행복을 주려면, 우리에게 가장 급한 일은 민족의 독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1)조선 = 우리나라

2)조선인 = 우리나라 사람

오늘, 우리 이천만 조선인은 저마다 가슴에 칼을 품었다. 모든 인류와 시대의 양심은 정의의 군대와 인도의 방패로써 우리를 지켜 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아가 싸우면 어떤 강한 적도 꺾을 수 있고, 설령 물러난다 해도 이루어한다면 어떤 뜻도 펼칠 수 있다.

우리는 일본이 1876년 강화도조약 뒤에 갖가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일본을 믿을 수 없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다. 일본의 학자와 정치가들이 우리 땅을 빼앗고 우리 문화민족을 야만인 대하듯 하며 우리 오랜 사회와 민족의 훌륭한 심성을 무시한다고 해서, 일본의 의리 없음을 탓하지 않겠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기에도 바쁜 우리에게 남은 원망할 여유가 없다. 우리는 지금의 잘못을 바로잡기에도 급해서, 과거의 잘잘못을 따질 여유가 없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를 바로세우는 것이지 남은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양심이 시키는 대로 우리의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결코 오랜 원한과 한 순간의 감정으로 샘이 나서 쏟아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낡은 생각과 낡은 세력에 사로잡힌 일본 정치인들이 공명심으로 희생시킨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아, 자연스럽게 올바른 세상으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처음부터 우리 민족이 바라지 않았던 조선과 일본의 강제병합이 만든 결과를 보라. 일본이 우리를 억누르고 민족 차별의 불평등과 거짓으로 꾸민 통계 숫자에 의하여 서로 이해가 다른 두 민족 사이에 화해할 수 없는 원한을 만들고 있다. 과감하게 오랜 잘못을 바로잡고,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여는 것이, 서로 재앙을 피하고 행복해지는 지름길임이 분명하지 않은가! 또한 울분과 원한에 사무친 2천만 조선인을 힘으로 억누르는 것은 동양의 평화를 보장하는 길이 아니다.

이는 동양의 안전과 위기를 판가름하는 중심인 4억 중국인들이 일본을 더욱 두려워하고 미워하게 하여 결국 동양 전체를 함께 망하는 비극으로 이끌 것이 분명하다.

오늘 우리 조선의 독립은 조선인이 정당한 번영을 이루게 하는 것인 동시에, 일본이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와 동양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다. 또 중국이 일본에게 땅을 빼앗길 것이라는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의 중요한 부분인 동양 평화를 이룰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조선의 독립이 어찌 사소한 감정의 문제인가!

아,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는구나. 힘으로 억누르는 시대가 가고, 도의³⁾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오는구나. 지난 수천 년 갈고 닦은 인도적 정신이 이제 새로운 문명의 밝아오는 빛을 인류 역사에 비추기 시작하는구나. 새 봄이 온 세상에 다가와 모든 생명을 다시 살려내는구나. 차디찬 눈보라에 숨 막혔던 한 시대가 가고, 화창한 바람과 따뜻한 별에 기운이 돋는 새 시대가 오는구나. 온 세상의 도리가 다시 살아나는 지금, 세계 변화의 흐름에 올라탄 우리는 주저하거나 거리낄 것이 없다. 우리는 원래부터 지닌 자유권을 지켜서 풍요로운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것이다. 원래부터 풍부한 독창성을 발휘하여 봄기운 가득한 세계에 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꽃피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떨쳐 일어나는 것이다. 양심과 진리가 나와 함께 나아간다. 남녀노소 구별 없이 어둡고 낡은 옛집에서 뛰쳐나와, 세상 모두와 함께 즐겁고 새롭게 되살아날 것이다.

3) 도의=인도와 정의

수천 년 전 조상의 영혼이 안에서 우리를 돕고, 온 세계의 기운이 밖에서 우리를 지켜주니, 시작이 곧 성공이다. 다만, 저 앞의 밝은 빛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뿐이다.

세 가지 약속

하나,

오늘 우리의 독립선언은 정의와 인간의 도리를 지키고 번성하며 살아가려는 민족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로운 정신을 드날릴 것이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멋대로 하지 말라.

하나,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지막 한 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뜻을 마음껏 드러내라.

하나,

모든 행동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조선을 세운 지 사천이백오십이년 삼월 초하루(1919년 3월 1일)

손병희 길선주 이필주 백용성 김완규 김병조 김창준 권동진 권병덕 나용환
나인협 양전백 양한묵 유여대 이갑성 이명룡 이승훈 이종훈 이종일 임예환
박준승 박희도 박동완 신흥식 신석구 오세창 오화영 정춘수 최성모 최 린
한용운 홍병기 홍기조



국민이 지킨 역사
국민이 이끌 나라